

지문 목차 _ 생각 워크북 : 문학편

복습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지문의 목차를 정리했습니다. 이 교재는 제재 구분 없이, 각 테마에 맞는 지문들이 모여 있습니다. 특정 제재 위주로 공부하거나 복습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 어떤 제재인지도 적어두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Improve step

2. 운문문학 해결하기

[현대시] 2014.09A [31~33] '상한 영혼을 위하여'	010P
[현대시] 2014.11A [31~33] '낙화'	012P
[수필] 2014.11AB [44~45] '권태'	013P
[현대시] 2015.09B [31~33] '모란이 피기까지는 / 고고'	014P
[현대시] 2015.06B [31~33] '와사등 / 울타리 밖'	016P
[현대시+수필] 2015.11A [31~33] '조찬 / 파초'	018P
[현대시] 2014.11B [41~43] '파초우 / 사평역에서'	020P
[현대시] 2014.09B [38~40] '생명의 서 · 일장 / 농무'	022P
[현대시] 2016.11AB [43~45] '아침 이미지1 /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024P
[현대시] 2017.09 [19~20] '병원 / 나무'	025P
[현대시+수필] 2017.06 [34~38] '향현 / 우리가 물이 되어 / 눈'	026P
[현대시] 2020.09 [35~37] '청명 / 초록 바람의 전언'	028P
[현대시] 2020.06 [43~45] '추일서정 / 하늘과 돌멩이'	030P
[현대시] 2011.06 [19~22] '강우 / 성탄제 / 서해'	032P
[현대시] 2013.11 [32~35] '폭포 /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 11 / 마음의 고향 6 - 초설'	034P
[고전시가] 2014.11AB [38~40] '천만리 머나먼~ / 청초 우거진 골에~ / 흥망이 유수하니~'	036P
[고전시가] 2015.11A [43~45] '상사곡'	038P
[고전시가] 2016.09B [31~33] '전원사시가'	040P
[고전시가] 2017.09 [16~18] '방옹시여'	042P
[고전시가] 2017.11 [43~45] '연행가'	044P
[고전시가] 2016.11B [40~42] '어와 동량재를~ / 고공답주인가'	046P
[고전시가+수필] 2018.06 [42~45] '오류가 / 차마설'	048P
[현대시+고전시가] 2012.11 [31~36] '구두 한 켤레의 시 / 산 너머 남촌에는 / 북찬가'	050P

3. 필수 고전시가

[고전시가] 2014.09AB [38~40] '매화사'	052P
[고전시가] 2016.06A [31~33] '농가 / 농가월령가'	053P
[고전시가] 2016.11A [40~42] '옹비여천가 / 강호사시가'	054P
[고전시가] 2015.09A [43~45] '정석가 / 임이 오마 하거늘~'	056P
[고전시가+수필] 2013.11 [46~50] '성산별곡 / 독자왕유회유오영 / 신록 예찬'	057P
[고전시가+수필] 2013.09 [35~39] '누항사 / 병산육곡 / 조어삼매'	060P

[고전시가+수필] 2011.06 [39~43] '두터비 파리를~ / 고공가 / 어부'	062P
[고전시가+수필] 2011.11 [27~31] '상춘곡 / 율리유곡 / 범희문 회서도원림'	064P

4. 산문문학 해결하기

[현대소설] 2011.06 [28~31] '눈이 오면'	066P
[현대소설] 2013.11 [17~20] '천변풍경'	068P
[현대소설] 2016.11B [31~33]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070P
[현대소설] 2016.11A [31~33] '나무'	072P
[현대소설] 2012.11 [13~16] '돌다리'	074P
[현대소설] 2014.11A [34~37]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076P
[현대소설] 2016.06A [34~37] '봄 · 봄'	078P
[현대소설] 2012.06 [25~28] '화산택이'	080P
[현대소설] 2014.09A [34~37] '꺼삐딴 리'	082P
[현대소설] 2011.11 [40~43] '나상'	084P
[현대소설] 2013.06 [26~29] '가객'	086P
[현대소설] 2018.11 [43~45] '관촌수필'	088P
[현대소설] 2019.09 [42~45] '비 오는 길'	090P
[현대소설] 2011.09 [35~38] '잠시 눕는 풀'	092P
[현대소설] 2014.06A [34~37] '미스터 방'	094P
[현대소설] 2014.09B [41~43] '광장'	096P
[현대소설] 2016.09A [39~42] '잔등'	098P
[현대소설] 2020.09 [42~45] '자서전들 쓰십시오'	101P
[현대소설+극문학] 2015.09A [34~37] '무진기행 / 안개'	104P
[극문학] 2013.06 [38~40] '출세기'	106P
[극문학] 2016.11A [34~36] '쇼'	108P
[극문학] 2016.11B [34~36] '제향날'	110P
[극문학] 2011.09 [32~34]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112P
[극문학] 2019.09 [39~41] '공동 경비 구역 JSA'	114P
[극문학] 2018.09 [23~26] '불모지'	116P
[고전소설] 2016.11AB [37~39] '토끼전'	118P
[고전소설] 2015.06A [39~42] '흥부전'	120P
[고전소설] 2014.06A [41~43] '구운몽'	122P
[고전소설] 2012.11 [25~28] '호질'	124P
[고전소설] 2018.11 [23~26] '사씨남정기'	126P
[고전소설] 2014.09B [34~37] '국순전'	128P
[고전소설] 2020.09 [32~34] '장끼전'	130P
[고전소설] 2019.06 [39~42] '옹고집전'	132P
[고전소설] 2021.09 [31~33] '심청전'	134P

R(einforce) step

2. 고전소설 클리셰 정리

[고전소설] 2013.11 [13~16] '금방울전'	138P
[고전소설] 2013.06 [34~37] '임진록'	140P
[고전소설] 2014.11A [41~43] '홍길동전'	142P
[고전소설] 2011.06 [47~50] '낙성비룡'	144P
[고전소설] 2016.06B [37~40] '전우치전'	146P
[고전소설] 2015.06B [39~42] '임경업전'	148P
[고전소설] 2018.06 [35~38] '적성의전'	150P
[고전소설+현대소설] 2017.11 [21~26] '박씨전 / 시장과 전장'	152P
[고전소설] 2012.09 [43~46] '육미당기'	156P
[고전소설] 2013.09 [20~23] '열녀춘향수절가'	158P
[고전소설] 2018.09 [33~37] '춘향전 / 춘향이별가'	160P

A(dvance) step

1. 문학의 독서화 경향

[현대시] 2015.06A [31~33]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166P
[현대시] 2012.09 [31~34] '새 1 / 어머니의 그릇 / 노래와 이야기'	168P
[현대시+고전시가] 2013.06 [13~18] '알 수 없어요 / 배를 매며 / 사미인곡'	170P
[현대시+고전시가] 2011.09 [13~18] '길 / 적막강산 / 단가육장'	172P
[현대시+극문학] 2017.11 [27~32] '구름의 파수병 / 느낌, 극락같은'	174P
[극문학+현대소설] 2017.09 [21~24] '독 짓는 늙은이'	178P
[현대소설] 2014.06B [41~43] '만세전'	182P
[현대소설] 2019.06 [43~45] '한계령'	184P

(가) 1

㉠하늘에 깔아 놓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적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다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2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3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쓰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 박남수, 「새 1」 —

(나)

어머니는 그릇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물을 담아 오신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그릇 중얼거리 보면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A]

[B]

무릇 시인이라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 있도록 불러 주어야 하는데
두툼한 개정판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 정일근, 「어머니의 그릇」 —

(다)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범한 귀신을 쫓아 엎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C]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D]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그러나 내 걱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E]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

04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동일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주고 있다.
- ③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영탄적 어조를 통해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시적 대상의 의미를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05 ㉠~㉣ 중 <보기> ㉡의 문맥적 의미와 가까운 것만을 고른 것은? [3점]

[보기]

마을의 한 아이에게 천자문을 주어 읽게 했더니 그 녀석이 읽기를 싫증 내고 짜증을 부리며 “하늘은 푸르고 푸른데 하늘을 나타내는 ㉠천(天)이라는 글자는 푸르지 않으니 읽기에 싫증이 나는 것이죠.”라고 합디다. 이 아이의 총명함은 한자를 처음 만들었다는 창힐(蒼頡)을 애타고 괴롭게 만듭니다.

— 박지원, 「창애(蒼厓)에게」—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0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것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 ② (나)는 일상생활에서 시의 발상을 얻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연을 구분하여 시상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환상의 세계에 대한 동경 의식이 나타나 있다.

07 [A]~[E]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그룩’보다는 ‘그룻’이 훨씬 풍부하고 다채로운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군.
- ② [B]: ‘그룻’이라는 말은 창조된 것이고 ‘그룩’이라는 말은 발견된 것이라는 뜻이군.
- ③ [C]: 시와 음악의 분리를 비판하는 것으로 보아 자유시보다 정형시를 선호하는군.
- ④ [D]: 말에 생명을 불어넣어 감동을 주는 시를 쓰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하고 있군.
- ⑤ [E]: 덧난 상처를 ‘이야기’로 치유한다면 상처의 원인은 ‘노래’에 있다는 뜻이군.

(해설 p.231)

(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

(나)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뉘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 장석남, 「배를 매며」 -

[A]

(다)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헤쳐 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 가뜰 냉담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황혼에 달이 쫓아 베개 밑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져.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꼬.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걸어 놓고 공작(孔雀)을 돌려 두니 가뜰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 던고. 원앙금(鴛鴦錦) 베어 놓고 오색선 풀어 내어 금자에 겨누어서 임의 옷 지어 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갓출시고.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白玉函)에 담아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에 뉘라서 찾아갈꼬. 가져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 울어 엘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수정렴(水晶簾) 걷으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뵈니 임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쥐어 내어 봉황루(鳳凰樓)에 부치고져. 누 위에 걸어 두고 팔황(八荒)에 다 비추어 심산궁곡(深山窮谷) 한낫같이 만드소서.

건곤이 얼어붙어 백설이 한 빛인 때 사람은 물론이고 나는 새도 그쳐 있다. 소상남반(蕭湘南畔)도 추위가 이렇거늘 옥루고쳐(玉樓高處)야 더욱 일러 무엇 하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어 임 계신 데 쏘이고져. 초가 처마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져. 홍상(紅裳)을 여며 입고 푸른 소매 반만 걸어 해 저문 대나무에 생각도 많고 많다. 짧은 해 쉬이 지고 긴 밤을 곳곳이 앉아 청등 걸어 둔 곁에 공후를 놓아 두고 꿈에나 입을 보려 턱 반치고 기대니 ㉢양금(鴛鴦)*도 차도 찰샤 이 밤은 언제 썰꼬.

- 정철, 「사미인곡」 -

* 양금: 원앙을 수놓은 이불. 혹은 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

0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 ②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조성하고 있다.
- ④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09 (가)와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구조가 유사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시상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② (나)는 화자의 시선이 자신의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③ (가)는 제5행에서, (나)는 제3연에서 시상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화자의 현재 상황을 자연 현상과 대비하며 시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완결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어 내고 있다.

10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알 수 없어요」를 비롯한 한용운의 시는 ‘절대자’라는 궁극적 존재를 탐구하는 시이다. 동시에 그것은 역설에 의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 또는 자기 극복의 시이기도 하다. 「알 수 없어요」에서는 이런 점이 물음의 방식을 통해 강화되어 나타난다.

- ① ㉠: ‘바람도 없는 ~ 오동잎’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누구’로 표현된 절대자의 존재 방식을 알려 주는군.
- ② ㉡: ‘푸른 하늘’과 대조되는 것으로, 화자와 절대자 사이의 만남을 가로막는 번뇌와도 같은 것이군.
- ③ ㉢: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 ④ ㉣: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와 짝을 이루어, 무한 공간에 걸쳐 있는 절대자의 면모를 드러내는군.
- ⑤ ㉤: ‘타고 남은 ~ 됩니다’와 관련되면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군.

11 [A]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랑을 갈구하는 화자의 행동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
- ② 사랑의 덧없음을 인정하는 화자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어.
- ③ 배를 매는 행위의 의미가 사랑임이 비로소 드러나고 있어.

- ④ 사랑의 운명적 면모가 자연의 섭리를 통해 제시되고 있어.
- ⑤ 사랑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심화된 인식이 나타나고 있어.

12 (나)의 ‘부듯가’와 (다)의 ‘수막’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듯가’는 이별과 만남이 반복되는 시련의 공간, ‘수막’은 이별 후에 정착한 도피의 공간이다.
- ② ‘부듯가’는 익명의 타인들과 어울리는 공동체적 공간, ‘수막’은 타인들로부터 은폐된 개인적 공간이다.
- ③ ‘부듯가’는 화자가 회귀하고자 하는 과거의 공간, ‘수막’은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현재의 공간이다.
- ④ ‘부듯가’는 사랑하는 대상이 화자를 기다리는 공간, ‘수막’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다리는 공간이다.
- ⑤ ‘부듯가’는 화자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공간, ‘수막’은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13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남성 작가가 자신의 분신으로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방식은 우리 시가의 한 전통이다. 궁궐을 떠난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사미인곡」도 이 전통을 잇고 있다.

- ① ‘옷’을 지어 ‘백옥함’에 담아 임에게 보내려 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신하의 정성과 그리움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 ② 지상의 화자가 천상의 ‘달’과 ‘별’을 매개로 임을 떠올린 것은 군신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청광’을 보내고자 염원하는 이유에서 시적 화자와 청자가 실제로는 신하와 임금의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다.
- ④ 추운 날씨에 ‘초가 처마’에 비친 해는 임금의 자애로운 은혜가 신하가 머물고 있는 곳까지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 ⑤ 긴긴 겨울밤을 배경으로 차가운 ‘앙금’을 통해 외로운 처지를 표현한 것은 군신 관계를 남녀 관계로 치환한 결과이다.

(가)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집에
까마귀 까악까악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 마소 내 집도
정주 객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 김소월, 「길」 -

(나)

오이밭에 벌배채* 통이 지는 때는
산에 오면 산 소리
벌로 오면 벌 소리

산에 오면
큰솔밭에 빠꾸기 소리
잔솔밭에 덜거기* 소리

벌로 오면
논두렁에 물닭의 소리
갈밭에 갈새 소리

산으로 오면 산이 들썩 산 소리 속에 나 홀로
㉠ 벌로 오면 벌이 들썩 벌 소리 속에 나 홀로

정주 동림 구십여 리 긴긴 하룻길에
산에 오면 산 소리 벌에 오면 벌 소리
적막강산에 나는 있노라

- 백석, 「적막강산」 -

* 벌배채: 들 배추, 야생 배추의 방언.

* 덜거기: 늙은 장끼.

(다)

장부의 하울 사업 아는가 모르는가
효제충신(孝悌忠信)밖에 하울 일이 또 있는가
㉡ 어즈버 인도(人道)에 하울 일이 다만 인가 하노라

<1장>

남산에 많던 솔이 어디로 갔단 말고
난(亂) 후 부근(斧斤)*이 그다지도 날랴시고
㉢ 두어라 우로(雨露) 곧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2장>

창밖에 세우(細雨) 오고 뜰 가에 제비 나니
적객*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 저 제비 비비(飛飛)를 보고 한숨 겨워하나니

<3장>

적객에게 벗이 없어 공량(空梁)*의 제비로다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 하는지고
㉤ 어즈버 내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

<4장>

인간(人間)에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천 리를 멀다 아녀 간 데마다 따라오니
㉥ 어즈버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5장>

설월(雪月)에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섞인 꽃 여원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
어즈버 호접(蝴蝶)이 이 향기 알면 애 끊일까 하노라

<6장>

- 이신의, 「단가육장」 -

* 부근: 큰 도끼와 작은 도끼.

* 적객: 귀양살이하는 사람.

* 공량: 들보.

14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과의 관계를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제시한다.
- ② 시각의 대립을 통해 부정적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
- ③ 역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낸다.
- ④ 회상을 통해 화자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
- ⑤ 명암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

15 (가)에서 외로움의 정서를 심화하는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오늘’도 정처 없이 ‘길’을 가야 함.
- ② ‘오라는 곳’이 없음.
- ③ ‘내 집’이 있어도 가지 못함.
- ④ ‘기러기’와 떨어져 있음.
- ⑤ 갈 곳 없이 ‘열십자 복판’에 서 있음.

16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의 1행은 ‘벌배채’가 여물어 가는 때라는 의미로 ‘산’과 ‘벌’의 계절적 배경을 드러낸다.
- ② 1연의 2행~3행은 ‘산’과 ‘벌’에 대한 경험을 청각적으로 제시한다.
- ③ 2연과 3연은 ‘산’과 ‘벌’에서의 청각적 체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④ 4연은 ‘산’이 ‘벌’과 상반된 공간적 의미를 지님을 드러낸다.
- ⑤ 5연은 ‘산’과 ‘벌’에 대한 체험의 의미를 집약하여 마무리한다.

17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제목은 제재를, (나)의 제목은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가), (나) 모두 시어나 시구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가)의 ‘정주 광산’, (나)의 ‘정주 동림’은 화자가 경험한 구체적 공간이다.
- ④ (가)의 ‘갈린 길’은 공간적 성격을, (나)의 ‘하룻길’은 시간적 성격을 띤다.
- ⑤ (가)는 의문과 확인을 통해, (나)는 서술어의 제한적 사용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18 (다)의 ㉠~㉥ 중 <보기>의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보기]

「단가 육장」에서 작가는 귀양살이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리라는 우려 속에서도 정계에 복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① ㉠ ② ㉡ ③ ㉢
- ④ ㉣ ⑤ ㉤

19 (다)에서 화자와 대상의 관계가 (나)의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1장 ② 2장 ③ 3장
- ④ 5장 ⑤ 6장

(해설 p.240)

(가)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먼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

그리고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어느 나의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 주고
나의 그릇됨을 꾸짖어 주어도 좋다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이다지 낱아빠진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리라
먼지 낀 잡초 우에
잠자는 구름이여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철 늦은 거미같이 존재 없이 살기도 어려운 일

방 두 칸과 마루 한 칸과 말쑥한 부엌과 애처로
운 처를 거느리고
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
지도 쑥스러울 수가 있을까

[A]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여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던
어리석음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나 보다
날아간 제비와 같이

날아간 제비와 같이 자국도 꿈도 없이
어디로인지 알 수 없으나
어디로이든 가야 할 반역의 정신

나는 지금 산정에 있다—
시를 반역한 죄로
이 **메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그리고 그 **구름의 파수병**인 나.

- 김수영, 「구름의 파수병」 -

(나)

함이정: 처녀 때 난 생각했었지. 영리하고 듬직한 아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쁜 일 슬픈 일 뭐든
지 의논할 수 있는 내 아들…… 그러다가 너를 느꼈
고…… 네 느낌과 이야기하길 즐겼다. 사람들은 나 혼
자 중얼중얼거린다고 괴상하게 보더라. 사실은 너와
나, 둘이서 함께 말하고 있었는데…….

조승인: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어머니.

함이정: 처음부터……?

조승인: 네. 제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처녀 시절**부터
요. 그때 두 분 아버지의 관계는 어땠죠?

함이정: 그땐 좋았다. 두 분 다 우리 집에서 가족처럼 살
면서, 우리 아버님한테 불상 제작을 배우는 제자였지.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인 아버님이 불상 제작장에 가
보니까 두 제자들이 자릴 비우고 없었어. 몹시 화가
난 아버님은 집 안으로 들어와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
셨지. “동연아! 서연아!” 아버님 목소리가 어찌나 찌렁
찌렁 울렸는지, 천 리 밖까지 들릴 것 같더라.

(조명, 밝게 변화한다. ㉠한가운데 펼쳐 있던 천막이 접
혀지면서 무대 천장 위로 올라간다. 함묘진의 집. 함묘진이
성난 모습으로 등장한다. 함이정과 조승인은 서연의 관, 촛
대, 향로 등을 무대 밖으로 갖고 나간다.)

함묘진: 동연아! 서연아! 어디 있느냐?

함이정: (무대 밖에서) 여긴 없어요, 아버지.

함묘진: 여기 집 안에도 없다……?

함이정: (무대 밖에서) 내가 나가서 찾아올까요?

함묘진: 넌 가만 있거라. (다시 외쳐 부른다.) 동연아! 서연아!

(㉢상복을 벗고 밝은 색 옷을 입은 함이정과 조승인, 무
대 안으로 나온다.)

조승인: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

함이정: 귀머거리도 들을 정도야. 그치?

함묘진: 동연아! 서연아!

(동연과 서연, 등장한다. 그들은 당황한 모습으로 함묘진
앞에 선다.)

동연, 서연: 부르셨습니까?

함묘진: 작업장엔 너희들이 없더구나!

동연: 죄송합니다. 잠깐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함묘진: 밖에는 왜?

동연: 말다툼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요.

함묘진: 말다툼?

동연: 네.

함묘진: 서연아, 네가 다툼 이유를 말해 봐라.

서연: 송구스럽습니다…….

함묘진: 너흰 생각도 행동도 똑같았다. 그런 너희들이 말
다툼을 하다니, 도대체 다르다면 뭐가 달랐더냐?

서연: 동연은 부처의 모습을 만들면, 그 모습 속에 부처
의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함묘진: 그런데, 너는?

서연: 그런데 저는…… 부처의 모습을 만들어도, 부처의
마음이 그 안에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했습니다.

동연: 사부님, 서연을 꾸짖어 주십시오. 서연은 쓸데없
는 주장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중략)

(서연과 함이정, 일어선다. 돌부처를 만들면서 길을 따라
간다. 물 흐르는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려온다. ㉔조명, 개
울물의 흐름을 나타낸다.)

함이정: 개울물이에요, 서연 오빠. 여기서 길은 끊겼어요.

서연: (개울가로 다가가서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며) 너
도 마시렴. 목마를 텐데…….

함이정: (서연 곁으로 가서 개울물을 바라본다.) 물
위에 비쳐 보여요, 우리 얼굴이…… 얼굴 뒤엔 구
름이…… 구름 뒤엔 하늘이……. (물을 떠서 마신다.) [B]
물이 맑고 시원해요.

(서연, 장난스럽게 개울물을 마치 눈덩이처럼 뭉치는 동
작을 한다.)

함이정: 오빠…… 뭘 하는 거죠?

서연: 물부처를 만든다.

함이정: 물부처요?

서연: 돌로도 부처님을 만드는데, 물이라고 안 될 건 없지.

(서연, 흐르는 물 속으로 들어가 물로 만든 부처를 세워
놓는다. 부처의 느낌은 남고 형태는 사라진다.)

함이정: 오빠, 이쪽으로 나와요.

서연: (개울물을 건너가며) 난 이제 저쪽으로 간다.

함이정: 서연 오빠…….

서연: 넌 나중에 건너와.

함이정: (손을 흔든다.) 그래요, 오빠…… 먼저 가요. 나는
나중에…….

(서연과 함이정, 잠시 개울물 양쪽에서 서로를 바라본다.)

㉕조송인이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며 작곡 중이
다. 개울물 건너쪽, 눈부시도록 밝아진다. 때를 놓치지 않으
려는 듯 함묘진이 다급하게 휠체어 바퀴를 굴리면서 들어

온다. 그는 피아노 옆을 지나 개울물을 건너간다. / 코러스
(돌부처)들, 개울물을 건너가는 서연을 배웅하듯이, 따라가
듯이, 마중하듯이, 서연과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며 간다.
개울 저쪽, 눈부시도록 빛이 밝다. ㉖함묘진이 다급하게 휠
체어 바퀴를 굴리며 들어온다.)

조송인: 할아버지, 어딜 그렇게 급히 가세요?

함묘진: 극락문이 열렸다! 극락문이 열렸어!

(함묘진, 휠체어에서 일어난다. 그는 서연의 뒤를 따라
빛 안으로 들어간다. 무대 조명, 변화한다. 동연, 등장한다.
그는 조송인에게 다가와서 전보 용지를 내놓는다.)

- 이강백, 「느낌, 극락같은」 -

20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의 ‘물건들’까지
살펴보면서 자기의 생활을 성찰하고 있다.
- ② 화자는 ‘나의 친구’가 방문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
이 ‘그릇됨’을 자각하고 있다.
- ③ 화자는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존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 ④ 화자는 자신을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시외는 반역된 생활’을 ‘죄’로 받아들이면서 자
신을 ‘구름의 파수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른들이 눈을 꿈적이며 먹탕곳 개펄곶을 그만 보라고 타이른 밤이면 담 밑에 반딧불만 자주 날아도, 촛불 불이려 혼자 사당(祠堂)문을 열 때처럼 뒷덜미가 선평하고 떨떠름하여 담 밑에도 가지 못할 만큼이나 그 도깨비불은 여간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런 날은 아무리 무더워도 모기가 떼메어 간다는 핑계로 마실 마당에서 일찍 물러나곤 하였다.

금기가 어떤 것일지 궁금해하며 읽었더니, ‘도깨비’에 대한 내용이었네요! <보기>에서 말한 대로 그 근원 같은 건 알 수가 없지만, ‘나’를 비롯한 동네 아이들에게는 공포의 존재였나 봅니다. “도깨비라는 근원도 모르는 금기가 있는데, 아이들에겐 공포의 존재였다.” 길고 긴 내용이 딱 이 정도로만 요약이 되네요. 낯선 어휘가 많아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면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복산이가 자리를 만들 동안 나는 변소를 찾아 나섰다. 농가라면 흔히 그렇듯 그곳은 저만치 밭마당 구석에 따로 나와 있었다. 나는 마당을 가로질러 가면서 무심결에 개펄 쪽을 둘러보다가 소스라쳐 놀라며 그 자리에 굳어 버리고 말았다.

(중략) 이후 새롭게 등장한 ‘복산’이라는 인물을 체크하면서 천천히 읽어 가는데, 갑자기 ‘나’가 소스라쳐 놀랍니다! 우리도 같이 놀라면서 ‘왜? 왜 그러는데?’라는 궁금증을 가져야겠죠?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아— 나는 참으로 오랜만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도깨비불—— 그렇다. 왕대피 밑 먹탕곳 개펄에 푸른빛을 내뿜는 도깨비불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던 것이다. 하나 둘 서이 너이…… 나는 어느새 도깨비불들을 손가락으로 헤아려 나가고 있었다. 변치 않은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는 반가움, 반가움과 즐거움에 들떠 그것들을 차곡 차곡 빠뜨리지 않고 세어 나갔다.

“마흔다섯…….”
하고 중얼거리며 나는 손가락을 떨었다. 내일 새벽엔 안개도 볼 수 있으리라고 믿어, 가슴의 설렘에 손가락마저 떨린 거였다. 모를 일이었다. 옛날로 돌아가 혹시 길 잃은 여우가 울부짖게 될지도.

‘나’는 도깨비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반가움, 즐거움, 설렘’ 같은 심리가 이 옛날의 ‘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까지 잡아주면

서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나아가 지금의 시점에서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시간이 변화했다는 것까지 생각해야겠죠?

“게서 뭇 허나?”

복산이가 같은 용무로 나오면서 허텅지거리를 했다.

“아, 도깨비불…… 생전 못 볼 줄 알았다가 보니 좋은데. 멋있는걸.”

나는 건너편을 손가락질하면서 들뜬 소리로 말했다.

“무엇이?”

“저 도깨비불…….”

“무엇 불?”

“옛날에 보던 도깨비불, 그거 아녀?”

“무슨 불? 허어 참, 그러게 장가를 가라구.”

“…….”

“도깨비불 좋아허네…… 저게? 술고래라서 안주두 고루 먹어 헛소리는 안 헐 중 알았더니…….”

“그럼 모르겠는데…….”

“뭘 몰러? 저건 서울서 온 낚시꾼들의 간드레 불이여. 명색 문화인이라면서 밤낚시 한 번두 못 해 봤구먼.”

나는 무엇에 밝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거꾸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오랜 꿈결에서 순간적으로 깨어난 것처럼 허망하고 민망했다.

“이리 죽 늘어앉은 디는 물길이구, 저쪽 저리 둘러앉은 디가 유수지여. 갯물이 들어오면 수문을 막았다가 쓸물 때 열어 물을 빼는디 민물고기 갯물 고기가 섞이구 해서 씨알두 게가 굵구, 물길에서는 잔챙이라두 붕어만 문다네. 남포, 청라 담에는 여기를 친다는 거.”

그제서야 나는 늘어앉은 불빛들이 제자리에 죽어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무등 타기와 숨바꼭질을 하던 살아있는 불이 아니란 것만 진작 알았어도 마흔다섯까지 수효를 헤아리지는 않았을 터였다. 나는 무슨 재산불이를 어둠 속에 잃고 찾지 못한 투로 무거워진 가슴을 안고 복산이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 이문구, 「관촌수필」 —

그런데 복산이와 이야기하다가 ‘나’는 ‘허망’하고 ‘민망’해집니다. 그게 도깨비불이 아니라 낚시꾼들의 간드레 불이었대요! 옛것을 찾은 반가움은 사라지고 가슴은 무거워진 ‘나’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43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8%	77%	6%	5%

① 딱히 반복되는 사건도 없고, 인물 간의 갈등이 심하지도 않습니다. 내용을 이해했다면 고를 수가 없는 선지네요.

② 장면을 교차하는 부분도 없고, 긴박한 상황도 도저히 허용하기 어렵네요. 참고로 '빈번한' 같은 주관적인 내용은 맞는 선지가 되기 아주 어려워요. 본능적으로 답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좋습니다. 분석을 통해 이런 감을 얻는 것도 중요해요!

③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는, '도깨비'라는 금기를 제시하여 '나'라는 인물의 인식 변화(두려움→반가움→허망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이해했다면 1초만에 답으로 고를 수 있는 선지네요.

④ 서술자는 계속 '나'죠? '시점'이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보다,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해요! '나'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걸 이해했으면 바로 틀렸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⑤ 시간의 역전도 딱히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과거→현재의 아주 평범한 구성이죠?) 사건의 내막을 감출 만큼 대단한 일도 없어요. 도깨비 금기는 원래 아무도 그 내막을 모르는 것이구요.

44 ②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2%	66%	14%	4%	4%

① 믿을 만한 말이라고 '우길' 따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미심쩍음'이라는 반응을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죠. 애매하다고 생각해도, 이게 바로 평가원이 제시한 허용 범위입니다.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② ㉠의 내용은 '뒷덜미가 선뜩하다'라는,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호기심'이라는 심리를 허용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죠. 이 상황이 착각도 아니구요! 바로 답이네요.

③ '놀랐다'라는 심리의 '근거', 즉 '반가움'을 생각했다면 바로 허용할 수 있는 선지네요. 지겹도록 똑같은 것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④ ㉡의 '설렘'이라는 심리의 근거를 묻고 있죠? 쉽게 허용할 수 있네요.

⑤ 역시 ㉢이 나타내고 있는 '허무함'이라는 심리의 근거를 잡고 있는지 묻고 있네요.

45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4%	5%	73%	13%

① 네 우리가 미리 생각했던 정보죠? 미리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도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허용할 수 있을 거예요.

② 공동체의 다음 세대에게 도깨비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니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③ '귀땀' 정도면 '구전'과 '은밀하게 전파'를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죠? '귀땀', '구전' 정도의 어휘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④ '나'가 마실 마당에서 물러나온 하는 행동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그렇죠. '도깨비불이 두려워서!' 이렇게 행동의 근거 한 번만 생각하니, 어른들의 처벌이 너무 헛소리로 보이네요.

⑤ 마지막에 가슴이 '무거워진' 근거를 묻고 있습니다. 심리의 근거를 생각해 보면, 5번 선지가 말한 그대로라고 할 수 있겠죠. 쉽게 허용이 되네요.

'심리와 행동의 근거'라는, 소설의 아주 기본적인 포인트를 묻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잘 정리합시다.

| 핵심 point |

-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근거'가 있어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이 아닌, '지문의 내용'에서 나와야 합니다.
- ② 소설 독해 : '누가, 어떤 행동/심리를, 왜' 보이고 있는지 생각하며 내용을 '이해'하면 됩니다.

(가)와 (다) 시에 대한 <보기>가 있네요. 먼저 보고 가야겠죠?

[보기]

「알 수 없어요」를 비롯한 한용운의 시는 ‘절대자’라는 궁극적 존재를 탐구하는 시이다. 동시에 그것은 역설에 의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 또는 자기 극복의 시이기도 하다. 「알 수 없어요」에서는 이런 점이 물음의 방식을 통해 강화되어 나타난다.

‘절대자’라는 궁극의 존재를 탐구하고,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 또는 자기 극복의 시이기도 하다는 내용이네요. 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들어갈 수 있으니 읽기에 훨씬 편하겠어요.

[보기]

남성 작가가 자신의 분신으로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방식은 우리 시가의 한 전통이다. 궁궐을 떠난 신하가 임금 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사미인곡」도 이 전통을 잇고 있다.

여성 화자를 내세워서 임금님이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고전시가의 내용이에요. ‘사미인곡’은 필수 고전시가이기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셨을 거예요. 부담 없이 읽어봅시다.

(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

실전 독해

<보기> 말대로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 작품이네요. <보기>에 근거하여 생각할 때, 여기서 찾는 ‘누구’는 곧 ‘절대자’를 의미하겠죠?

이렇게 절대자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사후적 독해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공중에 떨어지는 ‘오동잎’, 검은 구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 등이 누구의 ‘발자취’이자 ‘얼굴’인지 묻고 있습니다. <보기>의 도움을 얻으면, ‘절대자’라는 궁극적 존재를 탐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화자는 ‘오동잎’, ‘푸른 하늘’ 등을 ‘절대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계속 똑같은 구조입니다. ‘향기’, ‘작은 시내’, ‘저녁놀’ 등을 ‘절대자’의 흔적으로 보고 절대자에 해당하는 ‘누구’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

그런데 이 행에서는 조금 변주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구’, 즉 ‘절대자’를 찾던 화자는 ‘나의 가슴’에 주목합니다. 화자의 ‘가슴’은 다른 이의 밤을 지키는 ‘등불’이라고 합니다. 이는 ‘절대자’와 비슷한 능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절대자’를 찾는 것으로부터 역설적으로 본인 스스로를 ‘구도자’로 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겠죠?

(나)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낚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 장석남, 「배를 매며」 —

실전 독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배를 매는’ 상황에서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반응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도 없고 자세한 건 알기 어려우니까요.

사후적 독해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화자는 아무런 소리도, 말도 없이 날아온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매고 있습니다. 배는 천천히 멀리서부터 선착장으로 달고 있어요. 화자는 뭘 하려고 배를 매는 것일까요?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낚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갑자기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호젓한 부둣가’에 낚 놓고 앉아 있는데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합니다. ‘밧줄’을 받으면? 1연에서 말했던 것처럼 배를 매야겠죠. 화자는 이러한 행위들을 ‘사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납득은 잘 안 되지만, ‘사랑=밧줄 받는 것=배를 매는 것’으로 정리하고 계속 읽어봅시다.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 장석남, 「배를 매며」 —

‘배’는 원래 ‘구름’, ‘빛’, ‘시간’과 함께 떠 있습니다. 화자는 ‘배’를 매면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매어진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처음 아는 것이 곧 ‘사랑’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같은 말이 하나 더 늘었네요. 이제 ‘사랑=밧줄 받는 것=배를 매는 것=배를 매면 구름, 빛,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걸 처음 아는 것’으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알게 해 주는 ‘배’는 ‘빛’ 가운데에서 온종일 떠 있습니다. 이 ‘배’를 매고 저런 것들을 깨닫는 순간, 누구라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다)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헤쳐 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 가뜰새 냉담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황혼에 달이 쫓아 베개 밑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저.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꼬.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걷어 놓고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가뜰새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고. 원앙금(鴛鴦錦) 베어 놓고 오색선 풀어 내어 금자에 겨누어서 임의 옷 지어 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갖추시고.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에 뉘라서 찾아갈꼬. 가져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 울어 열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수정렴(水晶簾) 걷으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보이니 임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쥐어 내어 봉황루(鳳凰樓)에 부치고저. 누 위에 걸어 두고 팔황(八荒)에 다 비추어 심산궁곡(深山窮谷) 한 낮같이 만드소서.

건곤이 얼어붙어 백설이 한 빛인 때 사람은 물론이고 나는 새도 그쳐 있다. 소상남반(蕭湘南畔)도 추위가 이렇거늘 옥루고쳐(玉樓高處)야 더욱 일러 무엇 하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어 임 계신 데 쏘이고저. 초가 처마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저. 홍상(紅裳)을 여며 입고 푸른 소매 반만 걷어 해 저문 대나무에 생각도 많고 많다. 짧은 해 쉬이 지고 긴 밤을 곳곳이 앉아 청등 걸어 둔 곁에 공후를 놓아 두고 꿈에나 임을 보려 턱 반치고 기대니 양금(鴛鴦)도 차도 찰샤 이 밤은 언제 셀꼬.

- 정철, 「사미인곡」 -

실전 독해

〈보기〉에서 말한 그대로, ‘임 보고 싶어요!’ 이 한 마디밖에 없는 작품이네요. 봄의 밤이라는 시간적 상황만 잡아두고 (‘동풍’이라는 표현이 봄을 상징한다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네요.) 문제 풀어보려 갑시다!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8 ④ (풀이 순서 : 6)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6%	3%	83%	3%

- 공통점 문제네요. 이제는 제가 뭐라고 할지 아시죠? 답의 후보부터 찾아봅시다. ‘주제 의식 부각’이라는 강력한 내용을 품고 있는 4번 선지, ‘화자의 상황 구체화’라는 당연한 내용을 묻는 5번 선지 정도가 보이네요. 이들 먼저 확인해봅시다.

④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 역시 굉장히 거시적인 내용 이죠? (가)는 ‘오동잎, 하늘, 향기’ 등 거의 모든 소재에 ‘절대자’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나) 역시 ‘배’라는 소재를 ‘사랑’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데 쓰고 있죠. (다) 또한 ‘매화, 원앙금’ 등의 소재를 ‘임에 대한 사랑’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치환하고 있구요. 이렇게 찾을 필요도 없이, 시라면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며 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⑤ (가)의 ‘구비구비’, (나)의 ‘털썩’ 등에서 의태어는 보이지만, (다)에는 보이지 않죠? 찾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답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4번처럼 조금 더 거시적인 내용에 집중해봅시다!

나머지 선지도 확인은 해봐야겠죠?

①② 대화를 하는 장면이 전혀 없죠?

③ (나)에는 색채어가 보이지 않네요. (가)에는 ‘검은 구름, 푸른 하늘’ 등이, (다)에는 ‘백옥함’, ‘청광’ 등이 나타나지만요.

9 ① (풀이 순서 : 5)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83%	2%	3%	11%	1%

① (가)에서는 계속해서 ‘~누구의 ~입니까’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죠? 너무 쉽게 답이 나오네요.

② 그렇다기엔 처음부터 ‘배’ 이야기를 하고 있죠?

③ (가)의 5행에서 ‘시상의 전환’이 있대구요? ‘시상의 전환’은 화자의 상황, 반응이나 어조 등이 확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진짜 눈에 확 보일 만큼! 하지만 5행 역시 절대자를 찾는 모습 그대로이고, (나)의 3연도 계속해서 ‘배’가 있는 풍경을 묘사하는 것이니 ‘시상의 전환’을 허용하기는 어렵겠죠?

④ 자연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자연과 현재 상황을 ‘대비’하고

있지는 않죠?

⑤ (가)의 경우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물론 문장 구조 자체가 다르기에 수미상관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수미상관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10 ③ (풀이 순서 : 1)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5%	81%	4%	7%

①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떨어지는 오동잎의 모습을 절대자의 발자취로 표현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존재 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② ‘푸른 하늘’이라는 절대자와 관련된 소재가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럼 ‘검은 구름’을 절대자를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겠네요.

③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서 ‘알 수 없는 향기’가 분명히 난다고 하며 절대자를 찾고 있는데,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회의적 태도’라구요? <보기>의 내용과 연관 지어도, 화자가 절대자를 찾고 있다는 근거만 가득하니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선지네요.

④ ‘가이없는 바다’로부터 ‘무한 공간에 걸쳐 있는 절대자의 면모’를 쉽게 허용할 수 있겠죠?

⑤ ㉠이 있는 6행에서는 ‘나의 가슴’으로 변주되어 자기 정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어요. 이걸 지문 읽으면서부터 못 찾았다고 해도, 이 선지의 허용 가능성을 평가하면서 생각을 해내셨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11 ⑤ (풀이 순서 : 3)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3%	25%	13%	56%

– 당시 이 문제의 배점이 1점이었는데, (2013학년도 수능까지는 1점짜리 문항이 존재했었어요.) 꽤나 높은 오답률을 기록했던 문제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 봤던 시험이라 기억이 생생한데, 시험이 끝나자마자 학생들 사이에서 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토론했던 문제로 기억합니다 ㅎㅎ 그냥 갑자기 기억이 나서 말씀드려봤어요... 물론 ‘허용 가능성 평가’라는 무기로 무장한 우리에게는 꺾인 문제입니다.

① 사랑을 갈구하는 화자의 모습이 전혀 없죠? 그냥 무언가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② 사랑의 덧없음 같은 걸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③ 오답률 1위의 선지였습니다. 당시 많은 학생들이 [A] 부분의 1행~2행을 보고 ‘배를 매면서 무언가를 깨닫고 있고, 이 시의 화자는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 깨달은 게 바로 사랑이구나!’와 같은 뇌피셜을 펼치며 답으로 골랐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 생각이 얼마나 멍청한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3행에서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이라며 허용할 수 없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했으니까요. 단순히 배를 매는 것을 넘어, 배를 매면 다른 것들도 함께 매어진다는 걸 ‘처음 아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해석을 하는 게 아닌, 지문에 적힌 말 그 자체만 가지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FAQ

Q 그런데 ‘사후적 독해’에서는 ‘사랑=배를 매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A 그것도 맞지만, 문제가 묻는 것은 [A]에 대한 감상입니다. 배를 매는 행위의 의미가 사랑이라고 한 것은 2연이지, [A]가 아니잖아요! 화자는 [A] 부분에 와서야 비로소 배를 매면 다른 것들도 함께 매어진다는 걸 ‘처음 아는 것’이 곧 ‘사랑’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배를 매는 행위의 의미가 사랑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건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④ 역시 꽤나 높은 선택률을 기록한 오답 선지인데, 일단 ‘배를 매는 것’ 자체가 자연의 섭리가 아닌 인간의 의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운명적 면모’와 같은 것을 허용할 만한 근거도 없죠?

⑤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앞 연에서 한 이야기들(사랑=배를 매는 것)에서 심화된 인식(무언가를 처음 아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쉽게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12 ⑤ (풀이 순서 : 4)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2%	2%	5%	87%

– 이런 문제를 풀 때 팁을 드리면, 앞쪽에 제시된 ‘부둣가’에 대한 내용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부둣가’에 대한 내용이 허용할 수 없는 것들이라면 답이 될 수 없으니, ‘부둣가’에 대한 내용들 먼저 빠르게 확인해보는 거죠. 아래처럼 말이에요.

① ‘부둣가’에서 이별하는 모습은 나온 적이 없으니 허용이 안 되네요.

② 익명의 타인 같은 존재는 나온 적이 없죠?

③ 화자가 과거의 공간으로 회귀하고자 한다는 내용 역시 나온 적이 없습니다.

④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사랑하는 대상’은 등장한 적이 없어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네요.

⑤ ‘부둣가’에서 ‘사랑’에 대해 무언가 깨달음을 얻고 있는 것 맞고, (다)에서는 비어 있는 ‘수막’을 보고 있으니 ‘임의 부재’를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네요. 애가 답이었어요.

이런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수능 공부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공부할 때는 나머지 선지에서 (나)에 대한 판단까지 해보시면 좋겠죠?

① ‘수막’이 도피의 공간이라고 할 근거가 전혀 없죠?

② ‘수막’은 임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는 곳이니, 개인적 공간이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③ ‘수막’은 임이 없는 곳이니 화자가 벗어나려는 현재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④ 역시 없어진 ‘임’을 그리며 기다리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3번 선지와 4번 선지의 내용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둘 다 나름의 근거가 있으니 충분히 허용할 수 있다는 점, 이해할 수 있겠죠?

13 ④ (풀이 순서 : 2)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24%	22%	41%	10%

① 옷을 지어 보낸다니, 충분히 정성과 그리움을 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② ‘지상’과 ‘천상’의 대립 구도를 통해 충분히 ‘수직적 관계’를 허용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청광’을 보내고자 하는 이유는 ‘봉황루’에 부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를 통해 ‘신하와 임금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겠네요. ‘봉황루’가 임금이 계신 곳이라는 것 정도는 기본 어휘로 알고 계셔야 해요!

④ 추운 날씨에 ‘초가 처마’에 비친 해가 임금의 은혜라고 한 것이 아니고, ‘초가 처마’에 비친 해를 임금님에게 보내고 싶다고 한 것이죠! 일종의 ‘상세한 내용일치’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지문의 내용과 다르면 허용할 수 없어요!

⑤ 긴 밤의 외로운 처지를 이야기하는 건, 남녀 관계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죠?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네요.

| 핵심 point |

-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근거’가 있어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이 아닌, ‘지문의 내용’에서 나와야 합니다.
- ② 현대시 독해 : ‘실전’에서는 큰 틀만 잡고 읽은 뒤 선지 판단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독해를 진행하면 되지만, 실전에서 이러한 독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평소 ‘사후적 독해’를 연습해두어야 합니다.
- ③ 고전시가 독해 : 일단 겁먹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겁먹지 않고, 그 내용이 틀려도 괜찮으니깐 ‘현대어’처럼 읽은 뒤 ‘독해’하면 됩니다.
- ④ 문학의 독서화 : 문학 문제를 풀 때도 독서 문제를 풀 때처럼 ‘선지에서 묻는 것 생각하기’, ‘독해해서 의미 추출하기’ 등의 태도를 갖춰주셔야 합니다. 최근 더욱 강화되는 경향 중 하나예요!